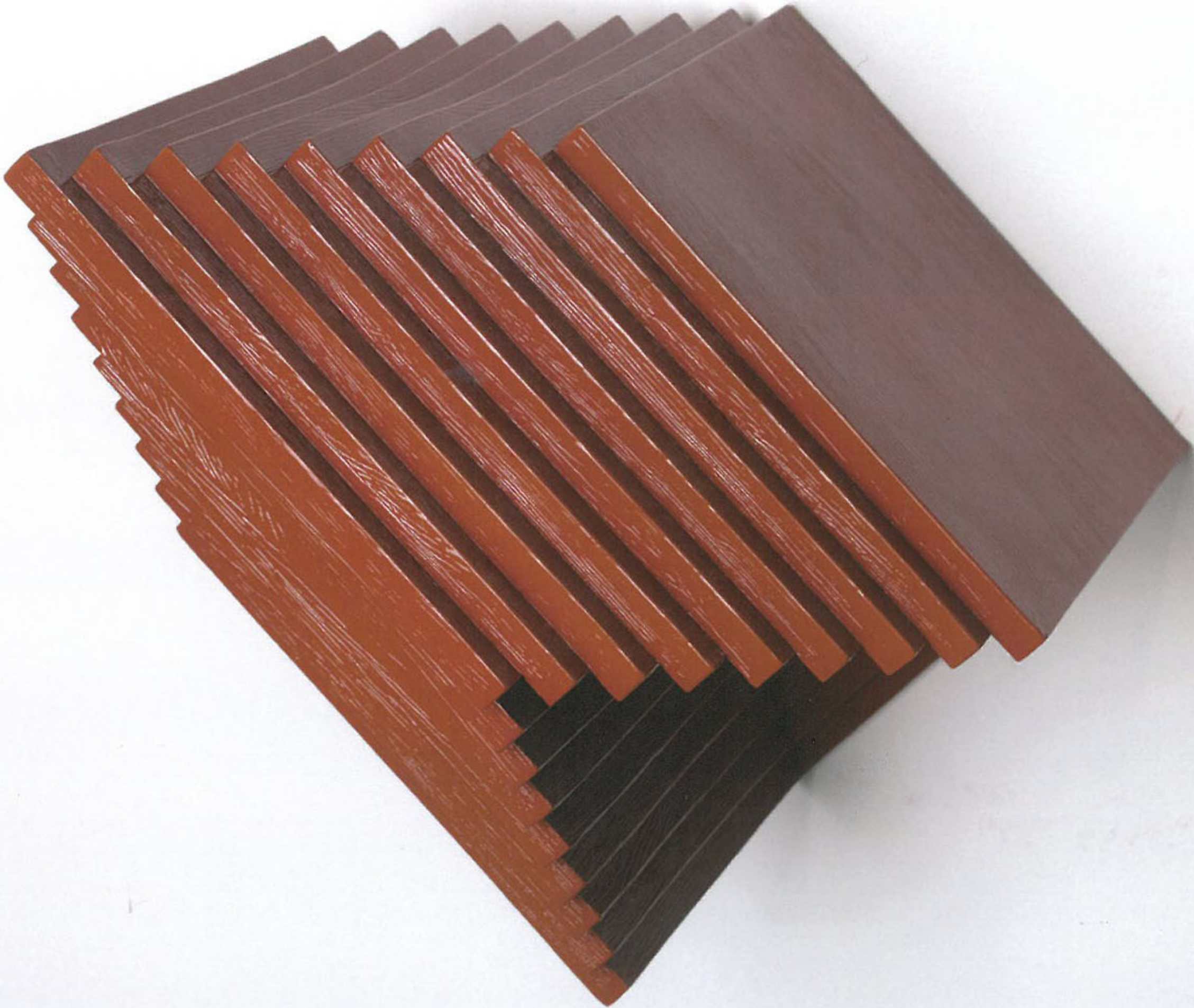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10
2,000원
부수인공예제
한국미술협회



2015 10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The Grand Tour of Korea in Autumn

There is a saying, 'Juapoong Woogyung(左風右景)'. This means looking at the scenery on your right while enjoying the breeze from the left. Wouldn't this be the most suitable phrase for this autumn?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a travel for getting rid of the pressure of daily routine. You take a trip for a sense of temporary parting from familiarity by putting ourselves in a strange place. We know that this is not different from what we feel in front of an art work. So I would like to suggest "why don't you add exhibition space near you on your visit list?"

Wolganmisool introduces exhibitions worth to add to your list all over the country. From Kanghwa, Cheonan, Daejeon, Jeonju, Damyang, Youngcheon, Icheon to Busan, the article features Town-Making Projects in various places and formats such as thematic exhibitions, solo exhibitions, projects mediated by the arts. Some are in white cubes, some are in open spaces, I bet the art works will quench your thirst for the arts. Coming of another yet great season for cultural activities, *Wolganmisool* wishes may you enjoy the autumn along with our recommended events.

"<Asia Contemporary Art> is an exhibition that Jeonbuk Museum of Art has prepared with a big ambition to raise questions on Asia's past, present and future. There have been many other numerous exhibitions and symposiums that examined discourses on Asia. However, they have taught us that it is not an easy task to find common issues that all Asian countries share due to their different histories and their socio-political conditions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cultures. However, the show is meaningful that it manages to define aesthetical natures of Asia in broad sense in this scale in this region. Thus the exhibition is drawing attention from many of us for its findings."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messages that the illusions of the works create under the titles, 'Breathe with the People,' 'Breathe with the Reality,' and 'Breathe with the Ideal.' Works by François Chartier, Adam Beane, Marc Dennis in the section one appear to emphasizing objective reality succeeding in the tradition of Photo Realism. Interestingly enough, however, their representations of the reality form a certain distance from the reality."

WORLD TOPIC

Anish Kapoor

Anish Kapoor(1954~) is an artist who we met through the exhibition held at Samsung Museum Leeum when the year 2012 turned to 2013. The same artist is presenting his new works at Versailles, France this year (6.9~11.1) following the exhibition by Lee Ufan last year. This exhibition once stirred up a big controversy whether the work is obscene or not due to the artist's comment that "my works are quite sensual." This exhibition still offered controversial enough issues to create big disputes on its political and critical interpretation in locale. I wonder what Kapoor really wanted. Was it chaos? or Obscenity? One this is sure that Versailles still looks too well organized not to think of it as quiet pond.

"However, it looked wonderful when I actually went and saw the piece. Looking at the work made me to forget all the scandals, criticisms, or applaud. Not a word can come out of my mouth but "ah!~" It was easy to understand that whole thing could fall apart if there was even one slightest flaw was made. Most works of Kapoor's are often excellently staged to give his audience strong impression on intuition level. He himself once claimed that he believes artist's intuition rather than reasons. According to Kapoor, "all of these (6 art works exhibited at the palace) was taken less than a month to complete the installation. If I had to spend time to calculate, this only leads to a death. I work in spontaneous way, and such choice of perspective involved with senses." There is only a handful of artists in the world who can shake up Versailles' long tradition and symmetrical aesthetics in this wonderful way."



Anish Kapoor

Versailles

2012년과 2013년을 잇는 기간 삼성미술관 리움 전시로 우리와 만났던 인도 출신 작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 그가 작년 이우환에 이어 올해(6.9~11.1) 프랑스 베르사유궁을 무대로 신작을 선보였다. 작가 스스로 “내 작품은 매우 성적(性的)”이라고 발언해 작품에 외설시비가 일기도 했던 이번 전시는 비평적, 정치적 해석이 겹쳐져 현지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니쉬 카푸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혼돈(카오스)이었을까, 아니면 외설이었을까? 어쩌면 아니쉬 카푸어는 너무나 반듯하게 꾸며진 베르사유궁이 마치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 같아 돌맹이 하나 던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더러운 구석〉의 뒷 부분(사진 심은록)

왼쪽 페이지 〈더러운 구석(Dirty Corner)〉 2011~2015

Courtesy Lisson Gallery, Galleria Massimo Minini, Galleria Continua, Kamel Mennour and Kapoor Studio, Photo: © Fabrice Seixas

아니쉬 카푸어, 베르사유 정원에 에로스과 카오스를 초대하다

심은록 미술비평, 감신대 객원교수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가 그의 독특한 레드로, 베르사유 정원을 물들이고 있다. 프랑스 스타일로 완벽하게 가꾸어진 푸른 잔디밭 위에 설치된 카푸어 작품의 레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붉고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베르사유궁은 2008년 제프 쿤스(Jeff Koons) 전시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적인 작가 한 명을 초대하는 현대미술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우환이, 그리고 올해는 아니쉬 카푸어가 초대되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성을 등지고 정원 쪽을 바라보면, 완벽한 균형감과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시선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처음에는 화려함의 극치인 라톤 분수를 보게 되고, 이어서 잘 가꾸어진 긴 잔디밭인 '녹색용단'에 머문다. 다음 거대한 인공 호수에 시선이 다다르는데, 이 공원을 설계한 르노트르는 이 호수를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호수가 실제 폭보다 좀 더 넓게 보이도록 시각적 트릭을 사용했다. 이 트릭으로, 르노트르는 베르사유 정원의 소실점을 더욱더 멀리 밀어냈으며, 덕분에 이 정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여유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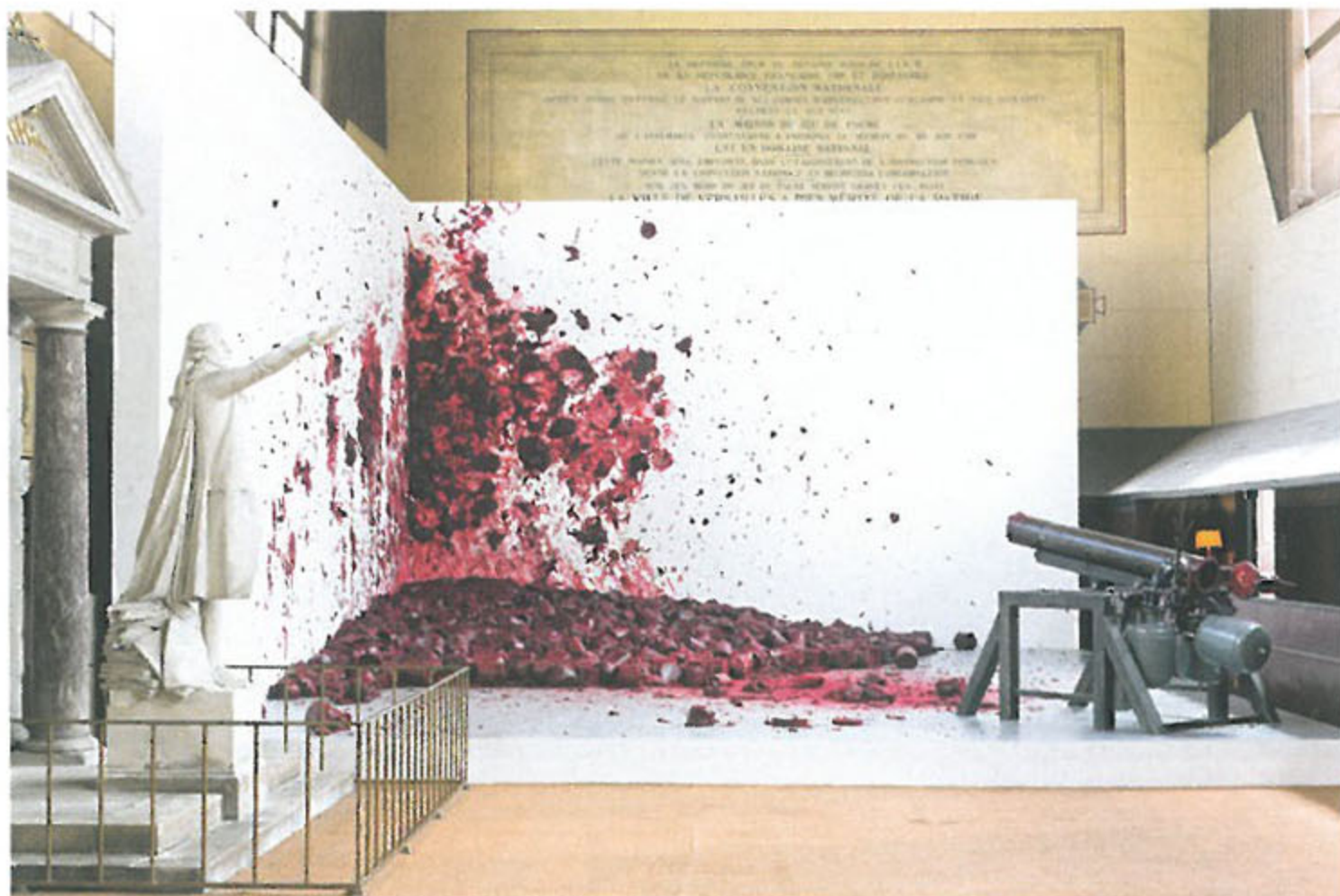
천천히 산책하듯이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정원의 한가운데에, 공사하다가 멈춘 것처럼, 유혈이 낭자한 폭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중간에서 황당하게 멈추게 하는 거대한 오브제가 불쑥 생겼다. 이 오브제는 시선의 흐름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의 좌우대칭의 완벽한 균형도 여지없이 깨버렸다. 베르사유 정원이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다. 바로 <아니쉬 카푸어, 베르사유전(Anish Kapoor Versailles)> (베르사유 정원(5개 작품)과 주드폼 룸(1개), 6.9~11.1)에서 논쟁의 중심이 된 <더러운 구석(Dirty Corner)>이라는 작품이다. 카푸어는 "베르사유의 평형성을 뒤엎고 카오스를 개입시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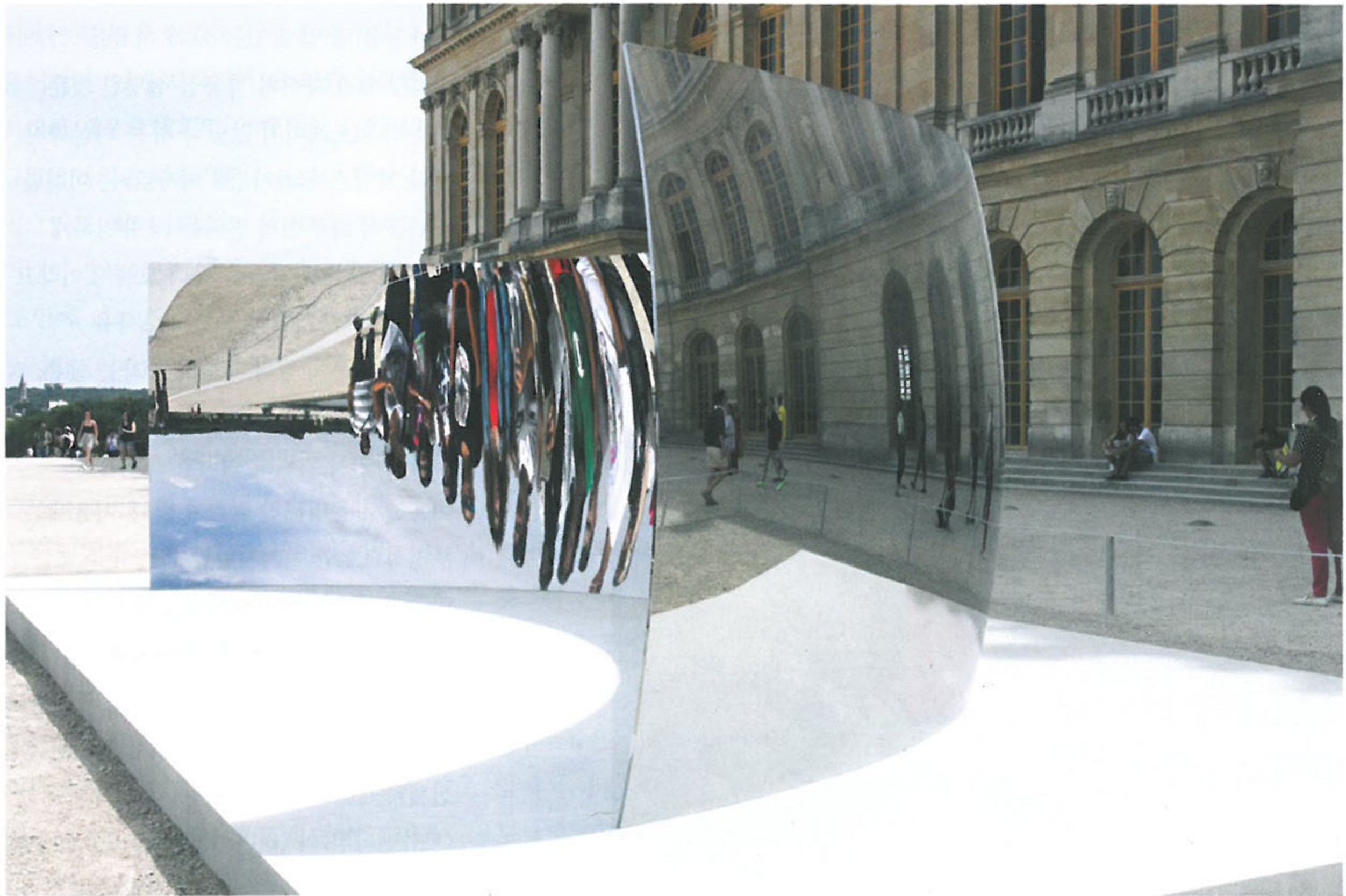
길이60m, 높이10m, 수천 톤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더러운 구석>은 '녹색용단' 위에 첩피덕 누워 있다. 녹슨 첩로 된 구조물의 전면부는 회화나 사진에서 여성의 섹스를 연상시키는 칼라 릴리를 닮았다.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가 그의 사진 <칼라 릴리(Calla Lily)> 연작에서 사용한 꽃(Zantedeschia Aethiopica)이다. 이

구조물 옆에 각각 25톤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흙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하다. 왜냐하면 베르사유의 프랑스식 정원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종류의 거친 돌이기 때문이다. 500톤의 돌이 벨기에에서 왔고, 1000톤의 흙이 농장지역에서 공급되었다. 이 작품의 뒷부분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부딪힌다. 설치의 앞부분이 여성의 섹스를 연상시킨다면, 그 뒷부분은 남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구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작품 중에, <구석으로 쏘기(Shooting into the Corner)>가 있다. 이 작품은 베르사유 궁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주드 폼에 설치돼 있는데, 이곳은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 '주드폼 선언'(1789.6.20)을 한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에 5kg의 붉은 밀랍을 쏘아대는 대포가 설치되어 있다. "일종의 남근의 상징으로 우리 현대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카푸어는 설명했다.

베르사유 정원에 전시된 모든 작품에 기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음과 양이 한 몸에 있는 헤파이스토스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더러운 구석>도 앞에서 보면 여성을, 뒤에서 보면 남성을 연상시킨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C-커브>는 알파벳 문자 'C'처럼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이 휘어져 있다. 볼록거울(양) 속에 비친 베르사유 성은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둥그스름하다. 이 작품의 반대 편인 오목거울(음)은 관람객들을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뒤집어 세운다. 이 작품에서 조금 멀리 있는 <스카이 미러(Sky Mirror)>는 둥근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 렌즈가 삼각대 위에 받쳐져 공중에 높이 떠있다. 오목거울로 된





위 <스카이 미러>(부분, 사진 심은록)

아래 <C-커브> 관람객들이 거꾸로 반사된다(사진 심은록)

왼쪽 페이지 <구석으로 쏘기(Shooting into the Corner)> 혼합재료 2008~2009 Courtesy Kapoor Studio, Photo: Tadzio

윗부분(음)은 하늘을 비추고, 불룩한 아랫부분(양)은 관람객과 뒤로 펼쳐지는 정원을 비춘다. 멀리서 오목거울 부분을 보면 마치 공중에 뜬 여의주처럼 온전한 유리공처럼 보인다. 9m²의 연못 물 속에 회오리바람이 부는 <하강(Descension)>은 '음양'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이 창조되는 첫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남성 신인 "우라노스(하늘 신)가 가오스(땅, 대지의 여신)와 붙어(?)있는"(헤시오도스, 《신통기》) 장면이다. <단자적 독자성 준비를 위한 절단된 신체(Sectional Body preparing for Monadic Singularity)>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음'을 표시 하는 것 같지만,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금 '양'이 된다. 이처럼 모든 작품이 음양이 같이 있는 헤라클레스적 추상적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킨다. 또한 인간의 기관(organ)을 떠오르게도 하는데, 이는 성적인 것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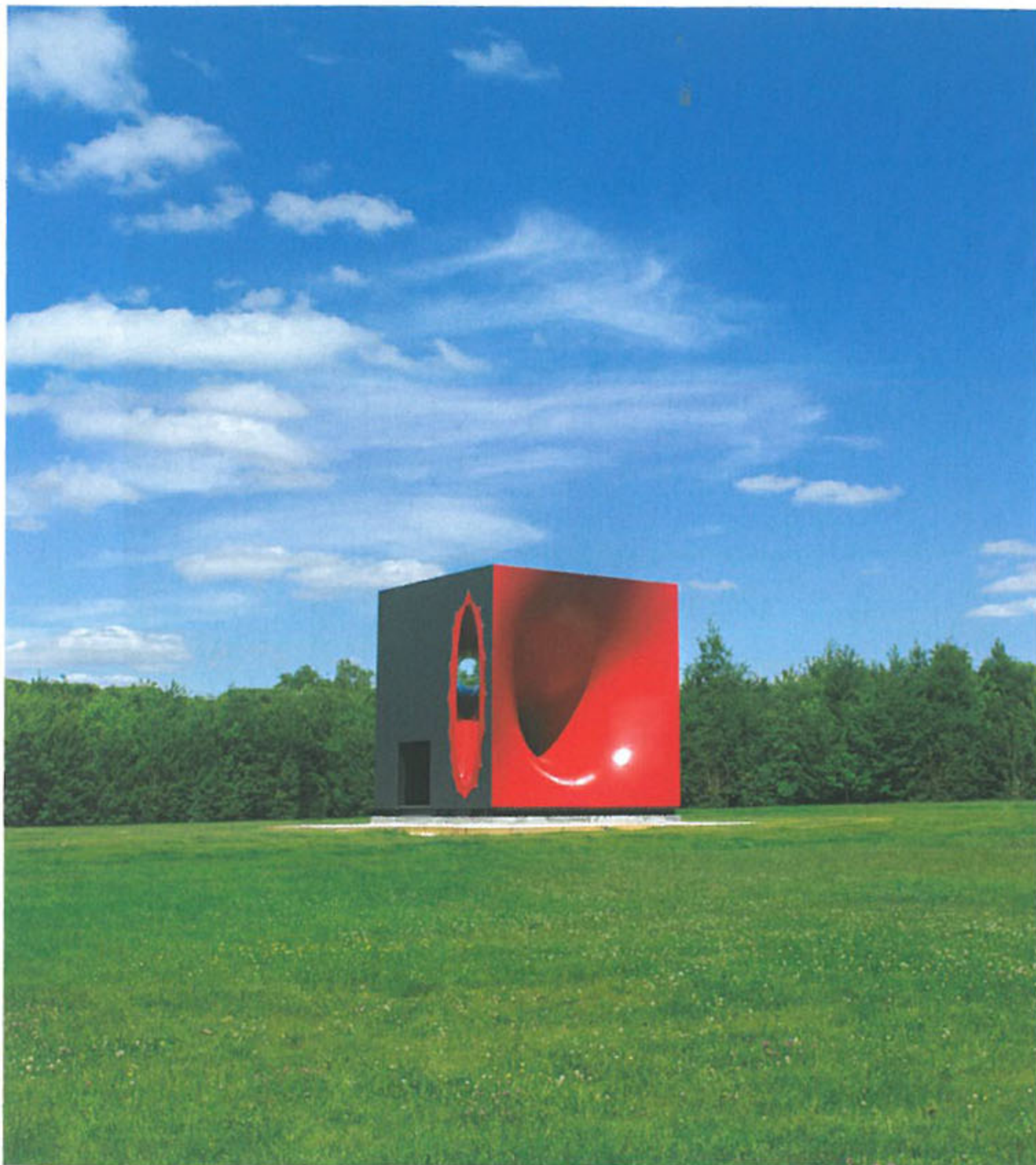
아니라, 위장, 창자, 고막 등의 기관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베르사유 궁에서 개최되는 현대미술전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에서 개최되는 모뉴멘타 전시와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전시다. 그랑팔레의 전시는 스캔들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반대로 베르사유 현대미술전은 스캔들이 없을 때가 거의 없다. 전시장인 그랑팔레는 건축적 아름다움이 무시되거나 작품이 도발적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전시가 목적이기에 묵과된다. 그러나 베르사유는 전시장이 아니라,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유적지다. 이 때문에 현대 작품을 설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작품이 강하면 베르사유 궁전의 미가 훼손되고, 베르사유 궁전에 맞추면 작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궁을 모독하고 풍경을 훼손한다며, 첫 초대 작가였던 제프 쿤스부터 무라카미 다카시, 조안나 바스콘셀로스까지 줄곧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 아니쉬 카푸어는 베르사유 전시 개막이 있기 열흘 전인, 5월 31일, 《JDD》(일요일의 신문)와 문제의 인터뷰를 했다. 그는 "<더러운 구석>을 성적이며 권력을 쥔 왕비의 질"에 비유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일부 프랑스인들은 <더러운 구석>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성기를 묘사한 것"이라며 이 전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더러운 구석>과 <구석으로 쏘기>가 각각 여성(질)과 남성(팔루스)의 상징을 연상시킨다며, 베르사유의 위엄과 프랑스의 혁명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분노한다. 이러한 "모독을 당하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낭비했다"며 한탄한다. 이 모든 스캔들은 어쩌면 카푸어가 《JDD》인터뷰에서 자초한 셈이다.

스캔들도 현대예술?

그간 베르사유에서 전시한 작가들의 스캔들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이처럼 방정맞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이러한 스캔들이 카푸어의 전시를 더 유명하게 해서 더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다. 제프 쿤스의 경우도 베르사유 스캔들 덕분에 관람객 수의 증가는 물론, 유럽에 그의 명성을 확실히 굳혔다. 현대 작가들 중에 의외로 이러한 스캔들을 이용해서 유명해진 작가가 많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스캔들이, 이제는 일종의 예술적 해프닝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것도 현대예술의 한 경향이 되는 것 같다.

<단자적 독자성 준비를 위한 절단된 신체>는 2011년 그랑팔레에서 열린 <모뉴멘타전>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연상시켰다. 18톤에 달하는 PVC 소재로 만들어진 7만2000m²크기의 팽창된 구조물인 이 붉은 괴물은 거대한



〈하강〉(부분)

소용돌이 치는 직경 9m의
인공연못을 만들었다. 멀리
베르사유성이 보인다
(사진 심은복)

왼쪽 페이지

〈단자적 독자성 준비를
위한 절단된 신체(Sectional
Body preparing for
Monadic Singularity)〉 2015
Courtesy Kapoor Studio,
Kamel Mennour and
Lisson Gallery, Photo:
Fabrice Seixas



그랑팔레를 가득 채웠다. 〈리바이어던〉을 보자마자, 관람객들은 “아!”하는 감탄사 외에는 할 말을 잊었다. 작품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어, 그 안에 있으면 거대한 생물체의 위장 속에 있는 느낌이다. 그랑팔레의 초여름 열기가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빛이 쉬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거대한 생물이 내장운동을 하는 듯하며, 그 안에 있는 관람객들은 위액에 녹아 버릴 듯하다. 〈리바이어던〉은 그랑팔레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파리의 초여름 빛의 운치마저 그 거대한 식욕으로 삼켜버렸다. 27만7687명이 관람하여 사상 최대의 성공을 거둔 이 전시는 카푸어가 이번 베르사유 초대 작가가 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 해인 2012년, 같은 장소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 뷔렌의 모뉴멘타 전시가 있었다. 카푸어와는 달리, 다니엘 뷔렌은 그랑팔레의 아름다움을 십분 활용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아래에 누워 파리 초여름 하늘의 변덕스러움을 재발견하며 즐거워하고,

야간개장 덕분에, 좀처럼 알기 어려운 그랑팔레의 아늑함과 파리의 그윽한 밤 정경을 즐겼다. 작품을 감상한다기보다는 향유하고 스스로 작품이 되었다.

〈모뉴멘타전〉에서 드러난 카푸어와 뷔렌의 서로 다른 경향이, 베르사유에서는 카푸어와 이우환 사이에 그대로 드러났다. 카푸어는 《JDD》와의 인터뷰에서 “르노트르의 작품과 대화를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어디선가 똑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바로 1년 전 이우환이 베르사유 전시를 계기로 했던 말이다. 카푸어와 이우환 두 작가 모두 르노트르와의 대화를 추구했으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이우환의 작품은 베르사유 정원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물며 어떤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쓰다듬거나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작품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베르사유가 오랜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 움직이게 했고, 그래서 그 움직임의 바이브레이션으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게 했다. 이와 반대로, 카푸어는 코스모스(질서)와 같은 베르사유 정원에 카오스(무질서)뿐만 아니라 에로스까지 집어넣어 베르사유를 화들짝 깨어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카푸어의 작품을 직접 가서 보니 근사했다. 스캔들도, 비판도, 찬사도 모두 잊게 되고, 아예 말을 잊은 채 단지 “아!”라는 감탄사만 나왔다. 무언가 아주 조금이라도 어긋났었다면 커다란 재난이 될 뻔했다. 카푸어의 대다수 작품은 관람객들이 직관적으로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출됐다. 그 자신도 설치할 때는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작가적 직관을 믿는다고 했다. “이 모든 것(베르사유 전시의 6개 작품)을 한 달도 안 걸려서 설치했다. 만약에 내가 숙고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죽음이다. 나는 즉흥적으로 작동하나, 이러한 나의 시점에는 일종의 감각이 있다.” 카푸어의 말이다. 베르사유의 오랜 전통과 완벽한 균형미를 이렇게 근사하게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작가는 세상에 흔치 않다. •